

Balenciaga의 作品에 나타난 建築的인 形態美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대학원
장 애 란

目 次	
I. 서 론	1. Balenciaga 의 작품 특성
II. 이론적 배경	2. Balenciaga 작품의 건축적 형태미
1. 건축양식과 복식양식의 유사성	
2. 건축양식의 형태미	
III. Balenciaga 작품의 건축적인 구성 표현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순수예술과 실용예술의 통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복식을 예술의 한 장르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복식을 건축, 회화, 조각, 공예 등과 같이 의미구조에서 제기된 조형대상으로 볼 때, 다른 예술 장르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시대적 양식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¹⁾ 그러므로 구성양식 측면에서 복식을 예술분야의 하나인 건축과의 유사성을 찾아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思慮된다.

의복과 건축은 인간 행위의 所產으로 오랜 역사 동안 발전하여 왔다.²⁾ 의복을 만들기 위한 形式은 그 시대의 美的 기준을 바탕으로 그 시대 특유의 형태(form)를 창조하였고, 한 시대의 의복은 그 시대의 정신, 思想, 情緒 내지는 美的 價値를 表出하고 있다. 또한 의복은 특유의 기술과 방법으로 인체와 인체의 움직임, 그리고 2차원적인 직물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감정을 질서 있게 표현하는 입체적 조형작업이라는 점에서 건축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회화, 조각, 실내장식, 가구 등 他 예술분야의 시각적 조형 양식 내지는 표현의 미적 주제와 일치점을 보여준다.³⁾ 이러한 의복을 다루는 패션디자이너의 조형능력은 자신의 경험과 이론, 연구방법의 전개에 따라 의복의 조형적인 구성과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⁴⁾

그리고 건축은 건축가, 건물, 사람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여러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 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공간예술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은 용도라는 目的性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절한 재료를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안전하게 함으로써 건축의 본질인 質적하고도 안전한 생활의 영위를 위한 기술적인 전개와 함께 공간 자체가 예술적인 감흥을 가진 창조성의 의미를 갖게 된다.⁵⁾ 건축가가 관련되어 있는 한, 건축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과정으로 자신의

1) 박명희, “1980年代 패션잡지에 나타난 포스트 보더니즘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연구보고 Vol. 15. 1992, p.

124

2) Eugene Raskin 著, 김창수 譯, 建築이란 무엇인가, (서울 : 대우출판사) 1983, p. 12

3)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Vol. 27-2. 1989, p. 4

4) Marti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0, pp. 279-280

5)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 pp. 1088-1089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 영향, 감동, 즉, 구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유용성을 넘어선, 좀 더 위대한 인간적인 의미를 지닌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인 것이다.⁶⁾

복식과 건축의 유사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그리이스의 도리아식 열주의 세로로 펴인 흠(flute)이 도리아 服의 특성인 단순하고 굽은 주름과 유사하고, 중세의 고딕식 건축의 외형과 머리 장식인 에넨(hennin)과 신발인 풀레느(poulaine)의 뾰족한 감각이 유사하다고 한 것과 같이 건축의 어떤 특징적 모습이 의복에 표현되고⁷⁾, 또 적절한 재료로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구조적인 쾌적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축적 사고가 의복을 구성하는데 종종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구성양식면에서 의복을 건축과 비교한 것은 의복과 건축의 조형성을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의 관계나 각 구성의 특성으로 표현됨으로써 단순한 시각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20세기 디자이너들 중에 전축적이라고하는 Balenciaga, Charles James, Capucci, Courreges와 같은 디자이너들을 연구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는 건축 양식과 의복 양식의 유사성을 알아보고 둘째는 건축 양식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한 형태미를 설정한 후, 세째는 그 형태미들을 바탕으로 20세기 디자이너들 중 유난히 공간 구성 능력이 뛰어나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표현할 줄 아는 건축학도 출신인 Balenciaga의 작품을 중심으로 건축적 형태미와 복식에 나타난 형태미를 비교하고자 한다.

언론을 기피하는 그의 성격때문에 자료 수집에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연구 방법으로 선행된 연구에 따라 건축과 복식을 예술의 한 장르로 보고, 문헌에 실린 것들중에서 주로 건축적으로 구성 표현된 Balenciaga의 작품을 中心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건축양식과 복식양식의 유사성

예술이란 인간의 창조 행동에 의해서 자기의 美的인 世界觀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방법으로,⁸⁾ 예술작품은 예술의 각 양식마다의 표현기술의 특수성에 따라 만들어진다.⁹⁾ 즉, 예술양식은 회화, 건축, 조각 등의 시각적 예술에서 대표가 되는 것으로 찾을 수 있다. 시대마다 같은 스타일의 회화나 건축작품이 거듭되면 필수록 그것은 유사한 양식이라고 보게 된다. 여기에서 예술양식이란 정신적인 것을 형태화하여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주므로, '양식(style)'이란 작품의 고유한 특성을 정의하여 관계를 밝혀주는 일종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¹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식에서의 양식(style)이란 線(line), 즉 어떤 것을 다른 形(form)으로 부터 분리해 낼 수 있는 線을 말하는데, 그것은 드레스의 명확하거나 특징적인 모드로서, Kroeber¹¹⁾의하면 세부장식보다는 形과 着裝法을 말한다.

McJimsey¹²⁾에 의하면, 패션에서의 스타일은 특정한 시간에 사용된 특정 실루엣, 패브릭, 트림, 액세서리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스타일과 구별되

6) 김창수 譯, op. cit., p. 28

7) Adrian Forty, Of Cars, Clothes and Carpets : Design Metaphors in Architectural Thought,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1, 1989, p.11

8) 成其澤 編著, 造景美學, (서울 : 학문사), 1979, p. 25

9) Ibid., p.27

10) 박명희, op. cit., p. 127

11) A.L.Kroeber, style and civilizations, (N.Y. : Cornell Univ. Press), 1957, pp. 18-19

12) H.T.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 Press, 1973, p. 43

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대상(object)이나 예술이 여기에 속한다. 그중 뛰어난 패션디자이너들은 선(line), 형(form), 색을 독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스타일을 창출하게 된다.

이와같이 복식에서의 양식은 작게는 특정적인 재단(cut)이나 線, 디테일의 型(shape, 2차원) 등을 의미하며, 크게는 型(form, 3차원)과 착장법을, 더욱 넓게 민족적 스타일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상 즉 형을 초월한 내용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인 표현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¹³⁾

건축의 예술성이란 단순히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조형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된다. 이는 성능이 좋은 공간, 構造技術의 솔직한 표현, 소재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운 성질, 그리고 이들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均齊로운 관계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⁴⁾ 다시 말하면 복식양식에 보편성과 일반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¹⁵⁾ 건축예술 역시 한 시대에 이루어진 건축들을 관통하는 일반성 및 보편성으로서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때 이를 樣式(style)이라 한다.¹⁶⁾ 그러므로 건축에서의 양식이란 단순히 다른것과 구별되는 건설양식, 설계방식을 가리키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보통 역사적인 양식을 말한다.¹⁷⁾

양식적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건축이 그 양식적 기원에서부터 근대건축에 이르는 사이, 항상 二元的인 발전과정, 즉 이지적인 양상과 감성적인 양상을 반복하여 이루어져 왔다.¹⁸⁾ 의미적 관점에서 양식이란 어떤 개념이나 이상을 디자인에 부여하는 것, 그리고 모든 디테일에서 개념이나 이상이 명확히 표현되도록 그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표현은 효율적 건물의 단순한 표피적 기능 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트 고리비에가 “순수한 사실은 거기에 적용되는 질서에 의해 서만 개념 전달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처럼 외적, 내적, 혹은 사실적인 배열,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일관성이 건축양식의 기초를 형성함으로써 본질적인 개념에 어울리는 사실에 대한 의식적인 질서화가 건축의 진정한 양식으로 표현된다.¹⁹⁾

복식과 건축의 유사성에 관한 선행된 연구에서와 같이, Tortota가 복식의 양식이란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각 시대의 복식을 건축 및 실내장식 등의 다른 예술 양식과 비교한 결과 “예술의 본질은 느낌(feeling)을 표현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공통점을 지적한 것 처럼,²⁰⁾ 본 연구에서도 건축과 복식이 같은 느낌을 지니는 특징적 외관의 형식을 공간적인 면에서 표현한다는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의도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선 복식과 건축 모두 형성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중요하며 그 과정은 가장 기초를 이루는 디자인 원리와 요소로 이루어진다. 또 예술로서의 복식과 건축은 옷과 건물의 기능적인 요구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더 큰 무엇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복식과 건축의 물리적 표현이 인간행위를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형태와 공간요소들(시각요소)을 배열하고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식과 건축에서 어떻게 의미를 끌어내며,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형태와 공간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태와 공간 요소들(시각요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능·목적·주변사황의 조건

13) 강진석, “샤넬복식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클래식 스타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Vol. 16, 서울대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991, p. 94

14) Britannica, op. cit., p. 1109

15) Marily J. Horn,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1981, pp. 38-39

16) Britannica, op.cit. p.1109

17) 김수현 外 1人, 建築設計 意匠論, (서울 : 도서출판국제), 1992, p. 287

18) Britannica, op.cit., p. 1110-1111

19) 김수현, op.cit., pp.289-290

20) 박명희, op.cit., p. 127

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복식과 건축의 구조는 그 자체가 이미 복식양식과 건축양식을 이루는 주요요소가 되는 것이며, 결국 服飾美와 建築美의 해석이라는 것도 이 구조의 결과가 일차적인 문제로 출발점이 된다.

2. 건축양식의 형태미

하나의 의복을 만들기 위한 패션디자인이란 인간의 본능인 美的表現의 欲求와 身體保護의 機能의인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디자인의 요소를 디자인의 원리에 입각, 藝術의으로構成하여 인간의 가장 밀접한 피부위에 調和시킨 것과²¹⁾ 마찬가지로, 건축 디자인에서도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유용성, 견고성, 美 등이 통일성(unity), 균형(balance), 비례(proportion), 척도(scale), 을동(rhythm), 절정(climax), 연속성(sequence) 등의 원리²²⁾와 상호완결적인 관계로서의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속성이 있어,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의도와 구조 자체의 잠재적 换起性(evocativity), 그리고 관찰자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³⁾

그러므로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건축 양식과 복식 양식을 비교하기 위해 건축 양식의 구성적 표현을 Heinrich Wolfflin의 박사학위 논문인 「건축심리학의 서문」과 Rudolf Arnheim의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김수현의 「建築設計, 意匠論」에서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정해 보았다.

1) 매스(mass)와 볼륨(volume)의 효과

작은 매스들은 개별성(Personality)과 개성(Individuality)을 보여주며, 커다란 볼륨은 개인의 확장이란 느낌을 준다. 그 확장이 획적인 표면에

서 일어날 경우 개인의 고양성에 대한 감정은 더욱 물리적이고도 명확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수직적인 확장의 경우 이러한 고양성은 지적이고 정신적인 성격을 지녀 인간관계의 초월을 나타내게 된다.²⁴⁾

2) 하중과 지지의 효과

심하게 뭉글어진 벽체를 지니는 각추형의 건물이나 피라밋과 같이 하중(weight)을 명확히 표현하는 형태는 힘과 영원성의 표현을 창출한다. 중력감의 표현은 전 우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중력감과 관계있는 것은 거대한 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하게 해주는 지지감인 것이다. 이는 바로 쇼펜하우어가 건축미학의 기본으로 여긴 성격이다. 완벽한 지지감의 효과는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다.²⁵⁾

3) 복잡성과 단순성의 효과

일반적으로 단순한 선과 면은 편안함을 준 반면, 계획적으로 조직된 복합성(complexity)은 엄청난 혼동을 극복한 승리감을 준다. 그것은 작은 부분들의 종합, 디테일의 문법, 그리고 전체성의 위력과 유일성을 통해서 하나의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였기 때문이다.²⁶⁾

4) 선과 리듬의 효과

선의 감각적 효과는 매스나 볼륨보다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매스를 둘러싼 평면의 교차와 지지 기둥, 보의 밑부분, 처마 등에 의해서 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평선의 안정감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평행의 법칙에 대한 수평선의 관계에 기인하여 통일성과 종합성을 지닌 반면 수직선은 긴장과 노력을 나타내며, 그 높이가 높은 경우 상승 개념이 있어

21) 유송옥, 服飾意匠學, (서울 : 수학사), 1979, p. 41

22) 김수현, op. cit., p. 25

23) Francis D.K.Cling 著 金鑑譯, 건축의 형태 공간, (서울 : 국제출판공사), 1987, pp. 8-9

24) 김수현, op. cit., pp. 276-277

25) Ibid., pp. 277-278

26) Ibid., pp. 278-279

열망과 초월을 상징한다. 그리고 수직선은 중력에 저항하는 하중지지 성격을 갖고 수평선은 대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므로 이 두가지가 종합되어 평형감을 갖게되면 힘을 나타내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기둥에 의해 표현된)지지감과 (엔테블레취의 수평선에서 표현된) 하중감 사이의 완전한 관계성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건축적 경험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평면이나 입면적인 요소에서 원은 폐쇄되고 종합적이며 완결된 성격을 지니며, 단절된 곡선은 긴장감을 주며, 나사모양의 회전곡선은 가장 다이나믹하고 흥미로운 곡선의 하나로 장식요소로 애용되어왔다.²⁷⁾

결론적으로 넓은 공간에서는 자신이 확장된 것으로 느끼며, 작은 공간에서는 구속감을 느끼고, 기둥에선 하중지지 성격을 감지하는 등 전부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이러한 직접적인 느낌과 인상작용, 관습이 융화되어 일어난다.²⁸⁾ 즉 건축작품은 본다는 것은 관찰자 자신의 감각기관이 하중과 저항력, 밀고 당기는 힘 등의 지각적인 작용력을 파악하는 것이다.²⁹⁾

III. Balenciaga 작품의 건축적인 구성표현

1. Balenciaga의 작품 특성

1937~1968년 까지 파리에서 많은 명성을 누렸던 Cristobal Balenciaga는 디자인, 재단, 봉제, 피팅이 가능한 독자적이면서 형태 지향적인 양식

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서³⁰⁾, 그의 작품은 구조적, 입체적, 테일러드하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발렌시아가는 1895년 스페인에서 선장인 아버지와 재봉사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났으며, 재봉사인 어머니가 그의 재능을 키워주는데 혼신적이었고 그때문에 그는 숙련된 재봉사가 될 수 있었다.³¹⁾라는 사항외에 그의 어린시절과 교육에 대해 선 서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헌마다 약간씩 차이가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발렌시아가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 언론에 비공개적이고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일화에 따르면 그의 경력은 후작부인(Marquesa de Casa Torres)이 입고 있는 드레스³²⁾를 복제한 것에서³³⁾ 시작하여 1916년 San Sebastian에 "Eisa"란 자신의 shop을 설립한 이후, Barcelona(1928), Madrid(1932) 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³⁴⁾

발렌시아가의 작품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후작부인과의 친분으로 엘레강스와 세련됨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을 수가 있었고, 예술과 유물을 열렬하게 좋아했던 Vlazio d'Attainville(본명은 Gaborowske)에게서 예술적인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다.³⁵⁾ 또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모국인 스페인과 그 곳의 감동적인 예술과 그 곳의 색이며,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에는 복잡한 개별성(personality)이 있다. 즉 스페인의 드라마, 종교, 그리고 미술품이 그의 작품에 암시되어 있고 파리의 영향은 그의 모더니즘과 호화로움, 엘레강스에 대한 감각에 잘 나타냄으로써 프랑스

27) Ibid., pp. 279~281

28) Ibid., p275

29) Rudolf Arnheim 著 손승광譯,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서울 : 세진사) 1987, p. 255

30) Dr. Charlotte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 Fairchild pub.), 1985, p. 534

31) Anne Stegemeyer, *Who's who in Fashion*, (N.Y. : fairchild's pub.), 1984, p. 4

32) Drecoll가에서 만든 흰색 Tussore의 tailleur

33) Frances Kennette, *Secrets of the Coutures*, (London : Orbis Pub.), 1984, p.73

34) Colin McDowell,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5, p. 88

35) Marie-Andree Jouve, *Balenciaga*, (N.Y. : Rizzoli), 1989, pp. 20~21

의 우아함과 스페인의 정열을 밀접하게 결합시켰다.³⁶⁾

발렌시아가는 패션界에 종사하기 전에 건축학 출신으로, 그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1920년대와 1930년대 근대 건축운동의 지배적인 사조로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건축 및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시기이므로,³⁷⁾ 발렌시아가 역시 기능주의의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주의의 건축가들은 디자인을 기능의 철학인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장식제거의 관점에서 작업하였다. 이때 ‘기능’이란 합리나 실용 따위의 측면이며 비합리, 충동, 상상력과 대립되는 개념이다.³⁸⁾ 이 기능주의 조형운동의 영향으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은 과잉 장식을 포기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form)를 추구하였다. 이 경향은 발렌시아가의 작품세계의 단순함, 장식절제, 즉 심플하고 결점없는 재단에서 기인한 라인과 형체의 조화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게끔 하였고 단순한 라인을 위해 모든 불필요한 디테일을 거부함으로써 단순함과 절제미로³⁹⁾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발렌시아가는 여성의 정신세계에서 여성의 해방된 인체와 외복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적인 사고로 행해졌음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다른 디자이너들은 기하학을 선정주의(sensationalism)를 위해 이용하였지만, 발렌시아가는 인체를 보강시키면서 급진적인 형태(radical shape)를 실물보다 좋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⁴⁰⁾ 외복을 만드는데 인체의 움직임과 제스처를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또 작업상

의 완벽주의를 고집한 발렌시아가는 의상(outfit)의 척도(scale), 비율(proportion), 균형(balance)의 중요성을 인식하여⁴¹⁾ 자신만이 가지는 비례의 완벽한 구조를 창조하기 위해 여성 형체의 아우트라인을 재투사하고 개조하였으며, 또 압도적으로 간결한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과장되게 커다란 모자나 아주 작은 모자를 이용하기도 하였다.⁴²⁾

2. 발렌시아가 작품의 건축적 형태미

건축양식의 구성적 표현을 위해 설정한 4가지 효과를 기본으로 발렌시아가 작품에 적합한 매스와 볼륨, 지지, 단순성, 선과 리듬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매스와 볼륨의 효과

매스란 어떤 부피를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서 지각되는 물체나 물체의 부분을 말하며, 볼륨은 시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量感을 의미한다.

발렌시아가의 작품을 보면, Zurban⁴³⁾의 영향으로 볼륨있는 형태를 도입하여 건축과 유사한 볼륨의 효과가 작품에 나타나 있으며(그림 1), 폭포와 같은 강한 건축적인 외형과 딱딱하고 조각적인 외형을 위해 무거운 직물을⁴⁴⁾ 이용한 것에서 매스의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dress의 경우 스커트를 지탱해주기 위해 hoop나 Petticoat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힌 건축적인 구성에 의존하여 볼륨을 살렸다.

36) Jane Mulvagh, op.cit., pp. 187~188

37) 곽대웅 외 7人, 디자인. 공예 대사전(서울 : 미술공론사), 1990, p. 85

38) 강진석, op.cit., p. 97

39) Frances Kennette, op.cit., p. 75

40) Jane Mulva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Y. : viking penguin Inc.), 1988, p. 187

41) Colin McDowell, op.cit., p. 89

42) Ibid., p. 89

43) Francisco de Zurbaran(1598~1664) : 17세기의 스페인 화가, 음침하고 단순한 수도사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44) 형이 잘 잡히는 소재 : 올과 오토만 실크, 더블 폐이스 올, 두꺼운 더블나트, 가자, 파이유, 슬리퍼 새틴, 산통



(그림 1)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발렌시아가 p. 318) : black Wool Sheath dress (1949)

2) 지지의 효과

건축상의 기둥에 의해 표현된 지지감이 발렌시아가의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중에 인체에 완전히 펴트하지 않은 편안함때문에 항상 완벽한 체격모델을 갖지 못한 여성들이 기쁘게 받아 들이게 된 것으로 특히



(그림 9) 앞은 맞고 뒤는 헐렁한 수트 (1952 : Vogue, p.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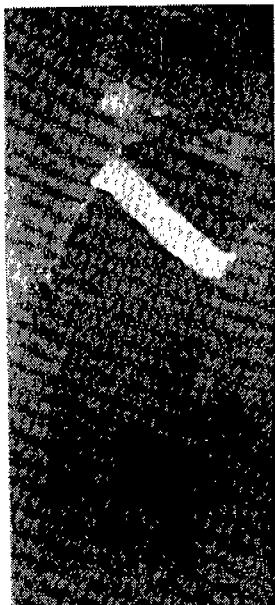
(그림 10) Jumper style의 suit (1964)
(발렌시아가, p. 271)



(그림 11) Tunic (1955) (발렌시아가, p. 206)

지지의 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그가 가장 마음에 든 모델인 Colette의 넓으면서 뼈가 도드라진 힙과 어깨, 그리고 우아하게 구부러진 등을 가진 호리호리한 몸매에서 날씬한 허리와 등근 힙으로 구성된 테일러드 슈트를 창안할 수 있는 영감을 얻었다. 그녀의 우아하게 굽은 어깨 또한 50년대 만들어진 슈트의 영감이 되었다.(그

그림 9, 10) 이것들의 앞판은 허리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뒤판은 혈령하게 보이도록 디자인 되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모피칼라와 드레이프가 늘어진 tunic을 착용하여 구부러진 등을 보정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지지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그림 12)에서도 지지의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2) 흰색 밍크로 장식된 뒤로 처진 collar
(1955 : 발렌시아가, p. 212)

3) 단순성의 효과

단순성에는 대상에서 세부를 버리고 주된 요소만을 남겨 단순하게 정리된 상태를 말한다. 발렌시아가의 예술적 목적은 단순화의 본질을 찾으려는 의도에 기초를 두어, 거의 모든 작품엔 단순한 라인을 위해 모든 불필요한 디테일을 거부함으로써 단순함과 절제미를 표현하였다. 허리선을 해방시키고, 장식이 절제된 sack dress와 chemise dress, 균형잡힌 작은 tailored suit, black crepe로 만든 day dress에 단순성의 효과가 두드러침을 알 수 있다. 또한 bracelet-length sleeved jacket과 3/4길이의 barrel-backed coat의 실제 보다도 입기 편안한 구성법에 특히 단순성을 많이 발전시켰다.

4) 선과 리듬의 효과

조형작품의 요소인 線은 面을 만들고, 면은 形을 만드는 것과 같이 관련되는 각종 요소에 영향을 미침으로, 선은 조형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발렌시아가는 앞은 짧고 뒤는 보다 길고 풍성한 비대칭 형태의 스커트가 달린 드레스에서 리듬있는 수평선의 반복에 의해 선과 리듬의 효과가 더욱 배가 될 수 있었다.(그림 19) 또 발렌시아가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면서 정교한 기술로 모든 솔기울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솔기선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가냘픈 륙과 풍성함을 매치시키기 위해 간단한 Black Sheath dress 위에 긴 ecru cotton으로 만든 shawl을 두르고 벨트로 꼭 맴으로써 수직으로 잡힌 여러개의 주름이 가냘픔과의 조화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그림 20)



(그림 19) 흰색 taffeta로 만든 드레스
(1958 : 발렌시아가, p. 106)



(그림 20) Black sheath dress
(1946 : Vogue, p. 192)

앞에서 살펴본 건축양식의 형태미와 발렌시아가가 표현한 형태미를 그의 작품을 통해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선과 하나의 매스가 조화를 이루어 평형감이 있으며, (그림 4)는 깊게 접힌 주름의 겹침에서 리듬의 효과, 어깨선에서 떨어진 coat의 모양에선 지지의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 클래식한 50대의 cocktail dress
(Spanish Design and Architecture, p.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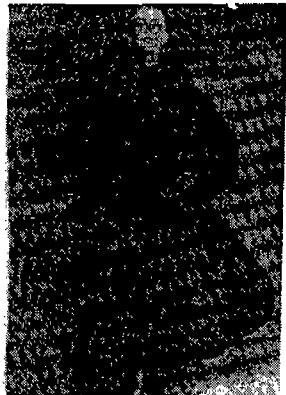
(그림 3) Black Gazar.Chou cape
(1967 : Fashion and Surrealism, p. 179)



(그림 4) sand duvetyne mantle coat(1950)
(Vogue, p. 209)

(그림 5)에선 두 매스의 균형으로 이루어진 드레스에서 리듬의 효과 뿐만아니라 볼륨 있는 스커트를 지탱해주는 지지의 효과도 있다. (그림 6)과 (그림 7)를 보면, 디자인 자체는 단순하나 (그림 6)은 네구퉁이가 사각으로 접힌 부분에서, (그림 7)은 소매가 규칙적으로 접힌 주름에서 리듬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8)에서도 디자인 자체는 단순하지만 gazar 직물 자체의 뱃뻣한 특성을 살린 peacock 형의 트레인에 지지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14, 15, 16)의 디자인 모두 그의 예술적 본질인 단순성의 효과가 두드렸고 그 작품들에는 시간적 요소가 파괴된 느낌이 들 정도로 현대에까지도 적절해 보인다. 특히 (그림 16)은 단순한 sheath dress로, 가슴 부분에 주름을 잡은 매스의 곡선 모양으로 장식의 효과를 냈다. (그림 17)은 불필요한 장식이 제거된 단순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suit로, 심플한 라인에 정교하게 잡

은 다아트와 모자에서 단순성과 매스의 효과가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그림 5) Balloon Style의 Dress
(1950 : 발렌시아가, p. 307)



(그림 7) Melon 소매가 달린 두꺼운 wool coat
(vogue, p. 208)



(그림 6) Black Gazar로 만든 사각형 드레스
(1967 : 발렌시아가, p. 253)



(그림 8) Ivory Gazar로 만든 Wedding Dress
(1976 : Vogue, p. 294)



(그림 13) beige wool patetot jacket(1953)
(vogue, p. 225)



(그림 15) 현재에도 신선해 보이는 layered look
(1952 : secrets of the couturier, p. 75)



(그림 14) white tussore suit (1938 : Vogue, p. 225)



(그림 16) 의식용 sheath dress
(Secrets of the couturier, p. 72)



(그림 17) 다아트를 정교하게 잡은 tussore suit와 taffeta 모자(1951 : 발렌시아가, p. 203)



(그림 18) 1938여름 (Secrets of the couturier, p. 12)

(그림 18)은 발렌시아가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테마중의 하나인 줄무늬로, 드레스 구성에 리듬의 효과를 주며 수평선 줄무늬 아래에 수직 줄무늬 밴드는 가늘어 보이도록 하고 사선무늬와 홀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 19)는 발렌시아가가 스페인 집시 의상에

서 영감을 얻어 밑에 주름을 모아 형태를 잡은 스커트가 달린 드레스이다.

IV. 결 론

발렌시아가는 인체와 의복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위해 인체를 결코 왜곡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건축적인 구성 방법으로 영감과 직물로 인체를 강화시키면서 결점을 보완시켜주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여성 형체의 아우트라인을 재투사, 개조하여 자신만이 가지는 비례의 완벽한 구조를 창조하였고, 의복이란 입기 편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대단히 고심하였다. ‘실용성’이 최우선의 이념인 기능주의 영향으로 완벽함과 단순함이 예술의 목적이 된 그는 장식의 절제, 즉 심플함과 결점없는 재단에서 기인한 라인과 형체의 조화에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였고, 단순한 라인을 위해 모든 불필요한 디테일을 거부함으로써 단순함과 절제미를 표현한 것 같다. 특히 강한 건축적인 외형을 위해 무거운 직물을 이용하였고, 뺏뺏하고 비중있는 의상을 위해 여러 종류의 옷감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양식과 복식양식을 비교하기 위해 건축적 구성표현을 (1)매스와 볼륨의 효과, (2)하중과 지지의 효과, (3)복잡성과 단순성의 효과, (4)선과 리듬의 효과 등 4가지로 설정한 후 그중에서 발렌시아가의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축적 형태미는 주로 단순성 효과가 근본적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의 특징으로 나타난 효과가 지지감이다.

계속적으로 발렌시아가를 비롯하여 20세기 패션 디자이너 작품의 외적 디자인 조형 및 구성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영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복식사 연구에도 기여하므로 앞으로도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대웅 외 7人, 디자인 공예 대사전, 미술공론사, 1990
- 김 감譯, Francis D. K. Ching 著, 건축의 형

- 태·공간, (서울: 국제출판공사), 1987
- 김수현 外 1人, 建築設計 意匠論, (서울: 도서 출판 국제), 1992
 - 김창수 譯, 건축이란 무엇인가 (Architecturally speaking), (서울: 대우출판사), 1983
 - 성기택 편저, 造景美學, (서울: 학문사), 1979
 -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 2(The World's Fashion Designers), 1992
 - 손승광 譯, 建築의 力學的 形態, (서울: 세진사), 1987
 - 유송옥, 服飾意匠學, (서울: 수학사), 1979
 - 강진석, “샤넬복식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클래식 스타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Vol. 16, 서울대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1991
 -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 가정학회지 Vol. 27-2, 1989
 - 박명희, “1980年代 패션잡지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연구보고 Vol. 15, 1992
 - Adrian Forty, Of Cars, Clothes and Carpets : Design Metaphors in Architectural Thought, Journal of Design History Vol. 2-1, 1989
 - A. L. Kroeber, Style and Civilizations, (N.Y. : Cornell Univ. Press), 1957
 - Anne Stegemeyer, Who's who in fashion, (N.Y. : Fairchild Pub), 1980
 - Brigid Keenan, Dior in Vogue, (N.Y. : Harmony Books), 1981
 - Colin McDowell,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5
 -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Y. : Bonanza Books), 1986
 - Dr. Charlotte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 Fairchild pub.), 1985
 - Emma Dent Coad, Spanish Design and Architecture, (London : Studio Vista), 1990
 - Frances Kennett, Secrets of the couturiers, (London : Orbis Pub.), 1984
 - Georgina O'Hara, The Encyclopedia of Fashion Design From 1840 to 1980s, (London : Thames & Hudson), 1986
 - Helen L. Broc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Y. : John Wiley & Sons, Inc.), 1965
 - H.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 Press, 1973
 - Jane Mulva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Y. : Viking Penguin Inc.) 1988
 - Marie-Andrée Jouve, Balenciaga, (N.Y. : Rizzoli), 1989.
 - Marily J. Horn,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1981
 - Marti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0
 - Palmer White, Elsa Schiaparelli, (N.Y. : Rizzoli pub.), 1986
 - Praeger Encyclopedia of Art, Vol. 1, 4, 5. (N.Y. : Praeger Pub.), 1971
 -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7
 - Valerie Steele, Women of Fashion Twentieth Century Designers, (N.Y. : Rizzoli), 1991
 - Hans L.C. Jaffe, 20000 Years of World Painting, (N.Y. : Greenwich house), 1983

ABSTRACT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of
Balenciaga's 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of Balenciaga's works.

He was perfectionist in tailoring which was based on architectural thought, and couturier who could design, cut, sew and fit a whole garment

Balenciaga has never followed any fashion trend but his own. He designed from within himself, according to his own sensitivity to fashion. Like Chanel, he mad clothes in which women can be comfortable, move in, and get

on and off with a minimum of effort. He applied radical shapes to flattering ends, for his clothes echoed movements and gestures, never determined them. He achieved the perfect harmony between the body and the garment, freeing the spirit of the woman within. Reflecting his respect for women, Balenciaga never contorted or restricted their bodies. He did not depend on hoops and petticoats to hold out the skirts of his evening dresses but on

well-balanced, architectural construction.

Therefore in order to identify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this study hypothesizes (1) the effect of mass and volume, (2) the effect of weight and support, (3) the effect of complexity and simplicity, (4) the effect of line and rhythm etc. The architectural beauty of form in Balenciaga's works are especially based on simplicity and support.